

## 남양산업(주)



▲ 남양산업(주)공장 배합사료공장 전경

## 비싸더라도 질 좋은 최상급 원료 사용



▲ 이주연 회장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청정지역 전라남도 강진. 이번호에는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아 인심까지 넉넉한 땅끝 마을 강진에 위치한 남양산업(주)을 찾아본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다섯 시간 가까이 달리다보니 호남 평야지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한참 보리수확이 끝나고 여기저기 보리짚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진읍에 도착하여 길을 찾는데 약간의 헛갈림은 있었으나 그리 어렵지 않게 남양산업을 찾을 수 있었다. 입간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심 좋은 고장 사람이라 그런지 마중나온 김재영 이사의 모습이 무척이나 푸근해



▲ (주)남양축산 농장 전경

보였다.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서 장거리 운행의 피로가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

1975년에 설립된 남양산업은 시작 당시 ‘양질의 사료공급으로 양축농가 이익증대에 기여 한다’는 모토를 내걸고 지금까지 끊임 없는 연구개발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옴은 물론 양축농가의 이익증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남양산업의 김재영 총괄이사는 “비록 사료판매 이익이 적더라도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여 오직 농가의 이익증대에만 정성을 쏟은 결과 이제까지 거래 농가들이 20여년된 장기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자랑한다.

또한 남양산업은 배합비를 자주 바꾸지 않는 회사로 소문이 나 있다. 잦은 배합비 변동으로 올 수 있는 가축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배합비를 신중하게 설계하고 있다.

김재영 이사는 “대부분의 사료를 자체 농장에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원료를 섞지는 않지만 비싸더라도 옥수수, 소맥피, 대두박 등 주·부원료를 최상급의 원료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가축들의 육질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현재 남양산업이 생산하는 사료는 축우용과 양돈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데 이중 40%는 자체

농장에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외부 농장에 판매를 하고 있다. 남양은 판매영업에 사활을 걸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사용할 질 좋은 사료를 생산하여 남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이웃 농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질 좋은 사료만 생산하면 자연히 필요로 하는 농가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영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영업에 투입될 인적·시간적 투자를 품질관리 쪽으로 더욱 신경 쓴다고 할 수 있겠다.

남양산업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약 15만평의 드넓은 야산위에 돼지 5,000두와 한우 500두를 사육하는 (주)남양축산이라는 대형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재영 이사가 안내하는 농장을 방문했다. 입구부터 방역이 철저했다. 외부 차량과 사람들의 출



▲ 폴사료 채취작업이 한창이다

입시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고 있었다. 안내하는 돈사로 들어가보니 돼지 분만사에서 새끼 돼지들이 한참 어미젖을 물고 있었다.

전체 돈사 및 축사는 완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돼지의 경우는 **MSY 20** 두리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김재영 이사는 자신 있게 말한다.

여기서 출하되는 육류들은 ‘청자골 남양한우’와 ‘청자골 남양포크’라는 브랜드로 전량이 육가공업체 및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돈사와 축사를 제외한 넓은 부지에 엔실리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곳에서는 연간 1억여원어치의 싱싱한 각종 사일리지 생산되고 있었다.

소탈한 점퍼차림의 이주연 회장이 반갑게 맞아준다. 이주연 회장은 강진에서 재력가이지만 검소하기로도 유명하다. 지금까지도 본인 소유의 변변한 차량이 없을 정도이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는게 그의 평소 지론이다. 하지만 필요한 직원들에게는 주저없이 업무용 차량



▲ 엔실리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을 지원해주고 있다.

“가축도 사람과 똑 같습니다. 보살피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가축의 성장이 둔화됩니다. 질 좋은 사료에 키우는 사람의 사랑이 가미돼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육경험을 바탕으로 사료를 만드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나 직원들 모두가 가축들을 늘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도 그런 관점에서



▲ 김재영 이사



▲ 농장으로 가는 벌크차량

제조하다보니 장기고객들이 많은가 봅니다.”  
라고 이주연 회장은 평소 소신을 말한다.

이러한 이주연 회장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 또한 남다르게 적극적이고 풍족한 편이다. 정기적으로 임직원 모두가 여행을 통해 피로를 풀거나, 등산대회를 통한 임직원간의 단합심을 꾀하기도 하고, 수시로 삼겹살 파티도 한다.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 또한 세심하게 챙긴다.

직원들의 애사심 또한 대단하다. 회사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며 일한다. 회사 발전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과 양축가의 이익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강진의 남양산업(주)이 전라도 전체를 석권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끝>☞



▲ MSY 20두를 자랑하는 돼지 분만사